

제공일자	2013. 8. 19(월)	담당자	김석영 연구위원
홍보담당	김세환 부장(02-3775-9051)	연락처	02-3775-9025, 010-4111-4019
			총2매

제목 : 신종 암보험상품, 리스크 관리 필요

- 보험연구원(원장 강호)의 김석영 연구위원은 『암보험 상품의 현황과 발전방향』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음(계간 보험동향 2013년 가을호 테마진단).
- 보험회사들은 그동안의 암보험 상품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암보험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음.
 - 과거 손해를 급등으로 보험회사들이 암보험 상품 판매를 중단, 혹은 가입금액을 축소시킴으로 암보험 상품 시장이 크게 축소되었음.
 - 소비자들의 암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암보험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음.
- 새로운 암보험 상품들은 보장기간 연장, 가입연령 확대, 혹은 보장 확대의 방향으로 서로 다른 형태로 진화하고 있음.
 - 보장 기간 확대 : 기존의 암보험은 최대 80세까지 보장하였으나 현재 평균 수명이 80세에 도달함으로써, 보장기간이 100세 혹은 종신으로 확대된 상품이 출시되었음.
 - 가입 연령 확대 : 기존의 암보험은 대부분 가입 연령이 60세까지였으나, 최근에는 가입 연령이 75세까지 확대된 암보험이 출시되었음.
 - 보장 확대 : 기존의 암보험은 최초 암 진단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, 재발 암 진단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여러 번 지급하는 상품이 출시되었음.

- 암 단계별로 보험금 차등 지급 : 기존의 암보험은 암의 진행 단계에 상관없이 동일한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, 암의 진행 단계별로 보험금을 달리 지급하는 상품이 출시 준비 중임.

기존 암보험 상품과 신상품 비교

구 분	기존 암보험 상품*	신상품들	소비자 혜택
보장기간	80세	종신	보장기간 확대
가입연령	~ 60세	~ 75세	고연령에서도 가입가능
보 장	최초암진단 보장	암진단시 보장	암진단 후에도 계속 보장

* 회사별로 약간 다를 수 있음

- 새로운 암보험 상품들에는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존재하며 이의 해결책이 필요함.
 - 보장기간 연장에 따른 미래 발생률의 불확실성으로 추세리스크가 존재함.
 - 가입연령 확대로 확대된 연령층에 대한 경험부족으로 수준리스크가 발생함.
 - 재발암에 대한 통계부족으로 정확한 발생률 예측이 어려움이 있음.
 - 단계별 보험금 차등 지급에 따른 민원발생 가능성이 존재함.
- 새롭게 활성화되고 있는 암보험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과 보험회사의 노력이 요구됨.
 - 암보험상품에 내재되어 있는 리스크를 보험료 산출에 충분히 반영하여야 함.
 - 보험회사는 경험자료와 시장분석을 통한 경험축적이 필요함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http://www.kiri.or.kr>